

익산시의회, 첫 회기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회기인 제23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주요 일정으로 2021년도 시장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8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소병홍 의원),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남석 의원)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 미래 대표산업의 필요성", 최종오 의원이 "시민 친화적 배산공원 정비사업 추진 필요, 익산역 광장 랜드마크 시계탑 설치 건의", 강경숙 의원이 "도로 주변에 사설내배수관의 정비 필요성", 조남석 의원이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한동연 의원이 "주책 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재난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교육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KTX익산역 대륙철도 거점역 '청신호'

정헌율 시장, 정세균 총리 만나 '철도차량기지 이전' 건의... 필요성 인정

정헌율 익산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KTX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성장시킬 첫 단추인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건의했다.

익산역 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철도차량기지를 이전시키면 이곳은 새만금과 환서해권을 아우르는 물류·환승체계가 포함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정 총리도 전북과 전남 등 호남의 철도망 확장에 따른 익산철도차량기지 용량 부족에 따른 확장 이전과 익산역 복합개발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지난 12일 정 총리 공관을 찾아 익산의 최대 현안인 KTX익산역의 확장 발전방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현재 KTX익산역에는 전라선과 장항선 운행열차의 정차비를 하는 차량기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국가 철도 운영계획에 따라 고속·셔틀열차 간



정헌율 익산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계 환승이 진행되면 익산역을 거점역으로 하는 일반열차 운행 횟수가 대폭 증가하여 차량기지 용량 부족이 우려된다.

1912년 철도개통 이후 익산역이 도시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현재는 철도차량기지가 도심을 동시에 단절시켜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진행중인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앙계획 용역에 좁고 노후한 익산철도차량기지를 이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익산역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간에 물류와 환승 체계가 담긴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부지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의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정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새만금의 항만과 항공, 익산의 철도망 등 트라이앵글 클러스터가 제대로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면서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익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정 시장은 "익산철도차량기지 이전은 새만금을 품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물류와 복합환승센터 등 복합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고드름 낙하 조심하세요" 익산소방서주의 당부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최근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건물 외벽 고드름 낙하 사고 위험에 대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드름은 눈이나 얼음이 햇빛·건물 열에 의해 녹아내리다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성되며, 추위가 잦아들고 거세지기를 반복하는 요즘 같은 날씨에 더욱 발생하기 쉽다.

특히,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드름 제거 건수는 1월에 67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 674건, 12월 264건 순이었다고 밝혔다.

대형 고드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눈이 온 뒤 즉시 제설 작업이 필요하며, 또 옥상과 배수로를 수시 점검해 고드름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고, 대형 고드름이 생긴 건물 인도에는 경고문과 통제선을 설치해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농협, 예수금 1조원 목표 사업추진 박차

'보험 함께하소! 이벤트·마트 '할인받고 대박나소' 행사 시작

1972년 설립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 익산시 평동로 698)은 지난해 자산 총액 1조원 달성에 이어 올해는 예수금 1조원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농협은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해 신년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비대면

회의를 통해 직원들간의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고 그 시작으로 '보험 함께하소!' 이벤트와 마트 '할인받고 대박나소' 할인행사를 시작하여 2021년 신년맞이 사업에 나서고 있다.

김병욱 조합장은 "작년 예기치 못한 감염병 사태와 자연재해로 우리농촌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역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익산농협은 다양한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부분이 환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농협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2021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수송동, 희망나눔 운동 지역사회 '귀감'

착한가게 참여 교촌치킨, 봉어빵을 주민에게 무료 제공

수송동에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운동이 실천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 수송동은지역주민 대상 '착한 캠페인'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하하호호 봉어빵 나눔' 행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에 시동을 걸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교촌치킨(미장수송점)에

착한가게 기념편찬 전달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직접 만든 봉어빵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다.

이번 착한가게에 참여한 교촌치킨(대표형남중)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

다"고 말했다. 이미아 민간위원장은 "새해에도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되며, 희망 가득한 수송동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필 수송동장은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2021년 민관협력을 더욱더 강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 실시 등 더불어 사는 수송동을 만들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 대학원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제령떨거르 씨 대한기초치의학회 우수 논문상

멘틀의바이오피플름 억제효능 인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원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석사과정 제령떨거르 씨가 제19회 대한기초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최근 서울대 관학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9회 대한기초치의학회 학술대회는 대한구강생물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대한구강해부학회 등 기초치의학 분야 학회들이 공동 주관했으며, 각 분과학회의 논문연구성과들이 발표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몽골 출신 외국인 유학생인 제령떨거르 씨는 유용육 교수 지도로 식품 및 생활용품 원료로 사용되는 멘틀이 치아우식증 원인균인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Streptococcus mutans)의 바이오필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멘틀의 바이오필름 억제효능' 실험 결과로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연구



에 대한 성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령떨거르 씨는 "꾸준한 연구로 상까지 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군산농기센터 2월 8일까지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보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군산농업을 육성하고자 4개분야 31개사업에 걸쳐 17억8,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8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및 농민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는다.

주요 시범사업은 지역특색 농업발굴과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정착을 위한 지도운영분야 2개사업, 농식품 시장성 향상과 가공사업장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식품가공분야 3개사업, 신제품 식량작물의 조기보급 및 군산쌀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작물환경분야 3개사업, 최근 기상환경변화 대응 및 농작업 편의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소득작목분야 15개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